

# St. Louis 정착 Guide Book



## Korea Olin Student Association (KOSA)

본 자료는 2012년 자료(이 역시 과거 자료 업데이트)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내용이 진부하여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인 의사결정 시에는 참고 정보로만 국한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Housing

- 집은 향후 미국에서 생활하는 근거가 되는 곳이므로 현지에서 직접 보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따라서 출발전 미리 호텔을 예약 (7~10일, 개인별 편차있음) 하고, 차량 구입 전까지 렌터 카를 이용하여 미리 조사한 House List에 있는 집들을 직접방문, 비교 및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격과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입주가 가능 일자가 의사결정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가. 공통

(1) 우선 미혼/기혼 여부에 따라 지역이 달라질 듯 합니다. 미혼자에게 적당한 학교 근처(학교 근처라 하여도 차 없이는 생활 불가능)로 CWE(추천, 집에 따라 상태/렌트 편차가 있음), U-City(좀 광범위한 지역, 좋은 집도 많고 집에 따라 네이버후드가 차이가 나는 듯), 델마 룬 (학교 바로 뒤, 저렴하여 언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임, 치안은 장담하기 힘들) 지역이 있습니다. 기혼자에게 적당한 학교 근처로는 Clayton (Ladue 지역은 렌트가 별로 없으므로 렌트해서 살기에 가장 고급 지역, 집에 따라 편차 아주 심함, 반드시 직접 발품팔고 고르셔야 함, 분위기 최강), Brentwood (주변에 쇼핑몰 많고, Villas at Brentwood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무난한 선택이 되실 듯, 다른 아파트는 직접 가보시길 추천) 지역이 있습니다. 한국 기혼자들은 보통 학교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거리의 Creve Coeur (네이버후드 좋고 클레이튼과 달리 저렴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아 관리 상태 좋음), Olivette (Creve Coeur와 붙어 있는 지역에 Bonhomme 정도 추천, 광범위한 지역으로 서쪽이 네이버후드가 좋다고 보시면 됨) 지역에 많이 거주합니다. 참고로, 미국 지역의 주택은 자녀가 둘이면 관련법규에 의해 2bed만 가능합니다. (자녀 3명이면 3bed). 또한 St. Louis지역은 대중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델마 룬이나 Clayton 지역 이외에서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난방이 전기로 되는지, 가스로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에어컨 실외기가 집 근처에 있는지, 세탁기가 집 내부에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세탁기가 집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공용 Coin 세탁기가 설치된 집은 피하는 편입니다.)

- St. Louis지역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보다 같거나 더 싸다고 볼 수 있지만, 가스요금은 우리나라보다 1.5배 정도되기 때문에 전기로 난방을 하는 곳이 더 유리합니다.
- Utility는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직접 전기, 가스, 통신회사에 연락해서 연결시켜야 합니다(통상 lease계약시 Leasing office에 문의하면 알려주거나 직접 신청해주시기도 합니다.).

(3) Housing 정보는 Rent.com / apartments.com / forrent.com / apartmentratings.com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위치 및 평가, Promotion 정보를 사전에 검색하고 Leasing office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나 email로 입국하는 날짜에 맞추어 Vacancy 및 Promotion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4) map.google.com 및 google earth를 이용하여 위치, 거리 및 경치 확인. 학교 주변에 아파트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5) city-data.com 에 가서 도시 정보 확인 (인종, 교육, 수입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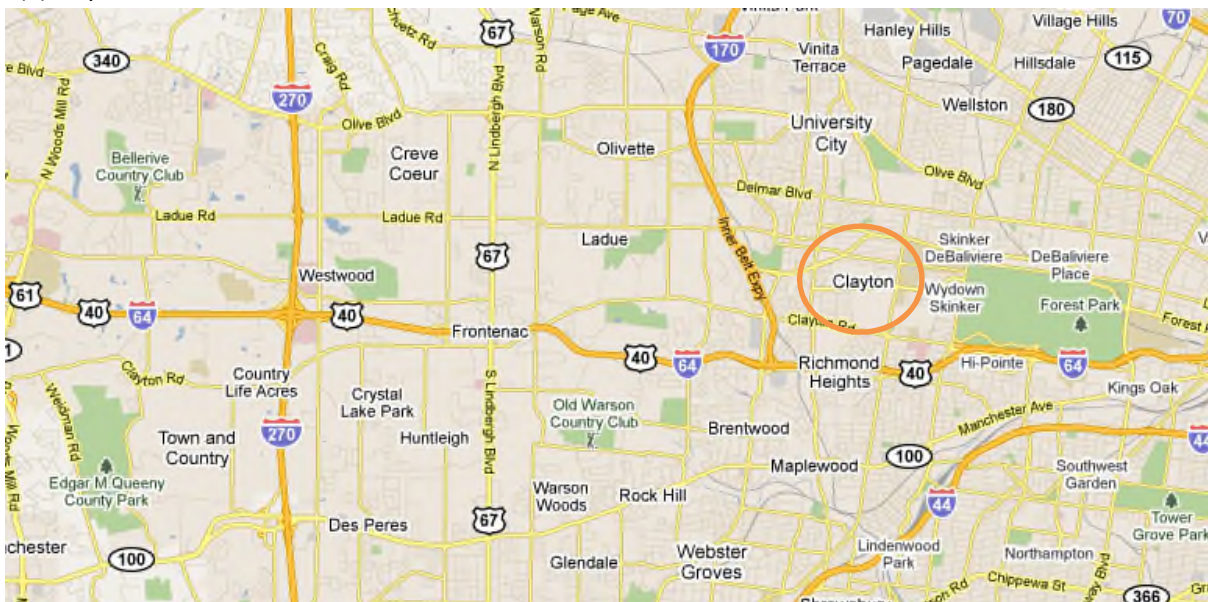
(6) Survey가 끝났으면 이제 선택을 합니다. 도착해서 집을 직접 보고 구할 것인가 혹은 한국에서 email, 전화, fax 혹은 선배를 이용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미리 deposit을 하면 집 예약이 끝납니다. (credit card 정보 혹은 money order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나. 지역별 세부정보 (2016. 5월 현재 한국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간략한 정보입니다)

(1) CWE, 델마 룬, U-City, 학교 아래 쪽

: CWE와 델마 룬 지역이 WashU 학생들(MBA 포함)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고 주변에 레스토랑, 커피숍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시티 오브 세인트루이스 다운타운보다는 대학가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파티 등 소셜 이벤트는 주로 이 지역의 바나 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혼자에게 적극 추천 드립니다. Class of 2017 중에서도 미혼이신 2분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CWE 아파트, 한 분은 학교에서 약간 아래 쪽 돌체스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는 한국 분들에게 학교 아래 쪽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 Cortona 아파트, Lofts at the Highlands 아파트 (카디널스 오승환 선수 거주) 등이 인기가 있는 듯 합니다.

(2) Clayton



- **지역소개:** Clayton에서 주로 한국분들이 많이 거주하며 생활환경이 좋다고 간주되는 지역은 동으로 S. Big Bend 남으로 Clayton Rd 서로는 S. Hanley 북으로는 Wydown Blvd를 경계로 하는 구역입니다. Wash-U Campus까지 자가용으로 5분, 도보로 30분, 버스로 7분정도 소요되며 버스는 매 2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골드 1번). 학교와의 짧은 통학거리와 초등학교 학군

이 좋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가깝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굳이 2대 운용할 필요가 없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생활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버스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U-pass를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자주 다니는 wydown길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길로 봄과 가을에 특히 아름다운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클레이턴은 매우 조용하고 안전합니다. 거의 백인들 주거 지역이며 밤 11시 이후에도 Wydown길을 산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레이턴 다운타운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도시적인 분위기도 느낄수 있으며 shaw park, forest park, wydown park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shaw park는 야구 축구 배구 등 운동 시설과 아이들 playground가 아주 잘 갖추어져 있으며 여름에는 야외수영장(다이빙대 포함)과 겨울에는 야외 아이스링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턴 주민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Clayton center는 일종의 문화 체육시설로 실내 수영장과 gym을 운영하고 하고 있고(유료), clayton downtown에 위치한 Mid county library에서 DVD와 책을 무료로 check out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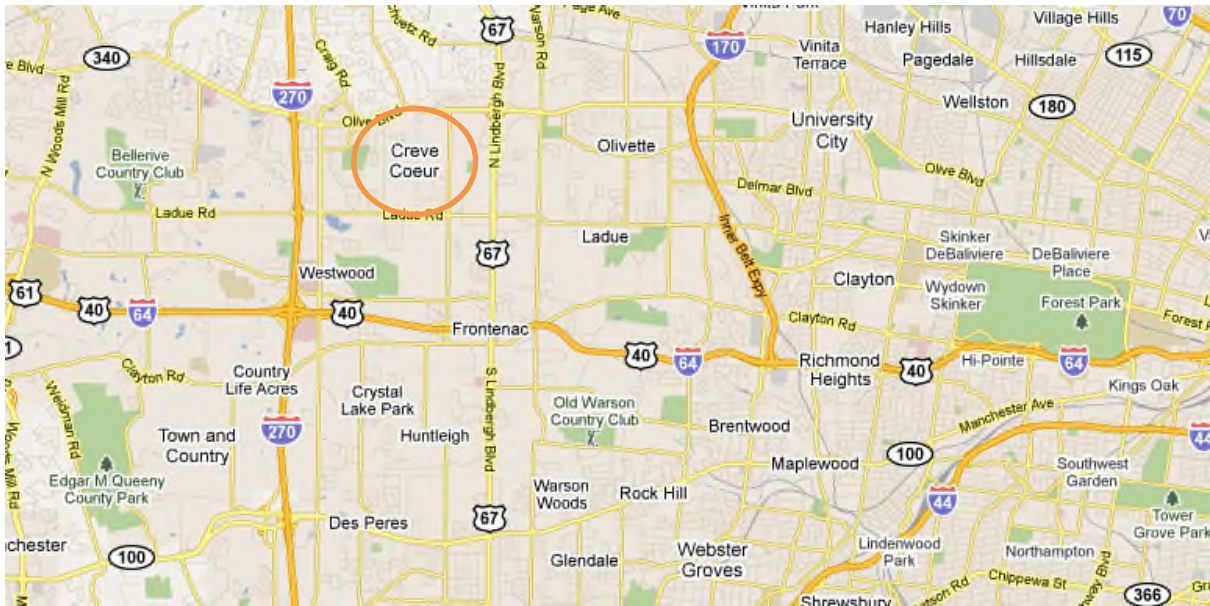
- **자녀교육:** Glenridge 초등학교는 Kinder부터 5학년까지로 구성되어있고, 공립학교로 별도의 교육비가들지않습니다. 단, 학교내 행사가 있을 시에는 참가활동비, 기부금등을 내기도 합니다. 클래스 당 한국학생들의 비율은학급당 10 % 내외수준(한 학급에 보통 15명)이며 MBA, Law School, 엄마와 함께온 자녀들 그리고 현지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전 Preschool로는 clayton downtown 에 위치한 growing place(몬테소리)와 wydown 동쪽 끝에 위치한 First congregational church preschool 그리고 워슈에서 운영하는 nursury 그리고 카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 Little flower 등이 있으며 가격은 종일반 기준으로 월 500불에 1000불 정도 다양합니다. 클래스당 한국아이 비율은 역시 10% 내외 입니다.

- **주거정보:** 클레이턴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60년 이상 오래되었으며 최근 수리가 안되어 있다면 겨울에 춥습니다. 월세비용은 내부 집수리 업데이트여부, 주차장등 편의시설에 따라 USD 800 ~ 1500까지 가격편차가 다양한 편입니다. (클레이턴 지역은 최근 거주자가 없어 2012년 자료 업데이트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렌트는 더 높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방문해서 알아본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이 지역에서 1000불 초반대 아파트는 추천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렌트 물량은 대부분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을 고려하면 내부수리가 된 2Bed 2Bath (4인가족의경우) 집의 경우 전기요금등을 포함해 최소한 1,100불이상이 소요되는것 같습니다. Clayton 지역은 여타지역에 비해 집을 구하시는 계약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소요시간이 많이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ousing Office가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세입자가 Rent 팻말에 나온 부동산 Agency에게 직접 연락을 해, 집주인을 만나 개별적으로계약을 하시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인근 Hotel에서 체재하는 편입니다.



## (3) Creve Coeur



- 주거정보:** 학교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Westchase 아파트의 경우 렌트는 1000 ~ 1200불 수준입니다. 렌트는 사이즈에 따라 차이가 나며, 1 bedroom, 1 bedroom & 1 dan, 그리고 2 bedroom 형태의 유닛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이즈에서 인유닛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sewer, water, trash 묶어서 월 40불 수준이고 티비 케이블(Charter Spectrum)이 렌트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추가 생활비 또한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이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리노베이트된 지 얼마 안 되어, 깨끗하고 또한 리싱 오피스에서 관리를 아주 잘 하는 편이어 (수리 등 요청하면 24시간 이내 처리)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수영장과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비즈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도 작지만 아주 편리합니다. 위치도 편의점(월그린)이 바로 앞에 있고 세탁소(CK Cleaners)도 아주 가깝고 큰 길 바로 앞이라 인근 식당/슈퍼마켓 이용도 아주 편리합니다. 단점은 카포트(50불, 비용은 저렴한 편)가 극소수이고 위치가 단지내 한 쪽에 치우쳐 카포트 사용이 불편합니다. 한국 유학생 중에 카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겨울에 눈이 오고 새뽕을 맞다 보면 아쉽습니다. 비슷한 렌트의 아파트로는 Beau Jardin 2 bedroom 1000불 이하 (역시 위치 최상, 학교에서 15분 거리, 단지도 깨끗하고 집이 이쁩니다. 단 공용 세탁기 사용), Charter Place Apartment 900~1100불 (단지가 크고 큰 길에서 조금 안 쪽으로 들어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학교에선 20분 소요. 또한 다양한 유닛 사이즈 중 선택이 가능하고 물론 렌트는 사이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인유닛 세탁기가 있는 사이즈와 없는 사이즈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많으셔서 조금 더 큰 아파트를 원하시는 경우 학교에서 조금 더 멀지만 Whispering Hills나 King's Landing이 좋다고 합니다. 현재 MBA 학생 중에는 거주자가 없어 업데이트 어려워 아래 2012년 자료 전달 드립니다. 아마 가격만 조금 더 높혀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Whispering Apt의 경우 2 bedroom flat형 기준 1100불 정도 수준(Town house(basement 포함 3 개 층)의 경우 약 1,400불 이상)입니다. 1000불 미만의 아파트도 인근에 있으나 건물이 오래 되고 공용 세탁기를 이용해야 하는 한편 자녀 학군을 고려해야 하는 가정의 경우 선호되지 않습니다. 거리는 차로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거주지역의 안전성과 와이프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Law school과 Medical school에 1~2년정도 파견연수 형식으로 오시는 한국분들과 일본분들도 많이 계신 듯 합니다. 아파트를 고르실 때는 에어컨 실외기의 위치(여러개가 같이 있어 소음이 상당합니다.), 방향(남향, 동향, 서향 등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어 해가 있는 낮에 방문하여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모델링 여부(같은 구조라도 100불정도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층(경우에 따라 1층의 경우 반대 쪽이 지하이고 한쪽은 지상층입니다. 방음이 잘 안되는 구조라서 사람들을 불러 파티를 하거나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경우 아래층에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 전반적 선호도를 고려 하셔야 합니다.

King's Landing Apartment의 경우 2007년 건축된 아파트로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APT의 분위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Hardwood Floor, Controlled access 및 Covered Parking 등 생활 편의성 면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Whispering Hills와 같은 녹지가 풍부한 환경은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ent는 2bed의 경우 월 1400불에 promotion 여부에 따라 12개월 계약시 한달 또는 두달을 500불씩 rent를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Creve Coeur resident card를 발급받으시면(Admission fee : \$5)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Creve Coeur Golf Course를 평일 \$9, 주말 \$11의 rate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ryland Heights의 수영장도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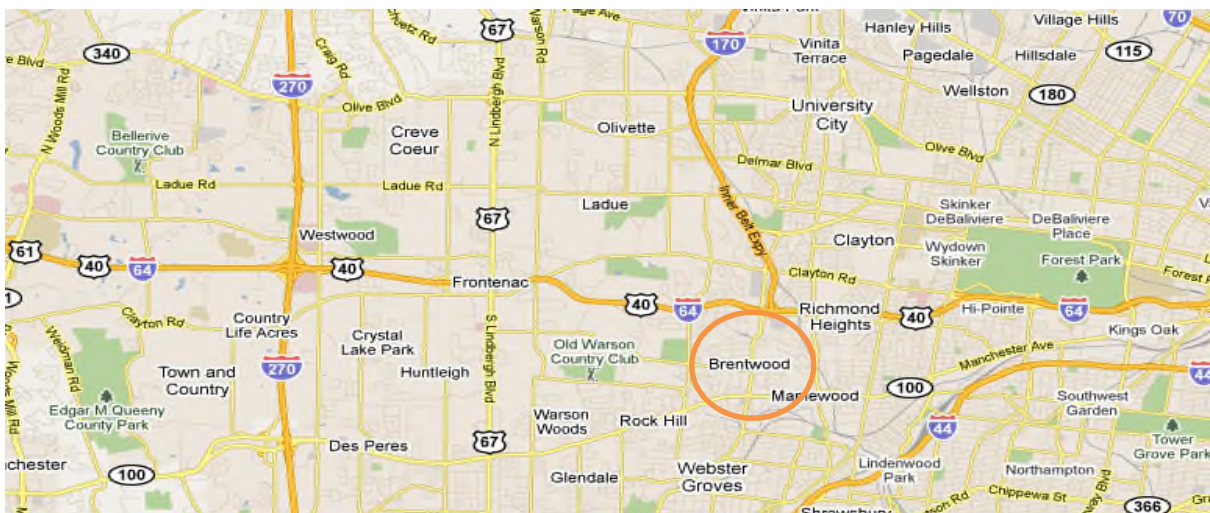
- **자녀교육:** Pre-school은 지역기준으로 (Creve Coeur, Whispering hills APT), 오전반은 400불, 종일반은 800불 정도입니다. 물론 공립 초등학교는 무료입니다. 위스퍼링힐스에는 Ross school이 위치해 있고, Clayton 지역의 학교들과 비교해도 프로그램이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참고로 Pre-school과 Kindergarten은 입학기준이 자녀들의 8월말 생일을 기준으로 학년이 분리되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 이후 킨더 입학생부터는 Full time이 무료로 변경되어 학비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School time: 8:30 ~ 15:00).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에는 Pre-school은 의무교육이 아닌 관계로 기본적으로 부모의 학비 부담능력에 따라 학교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Public pre-school의 경우에는 주 5일 오전반 기준으로 월 400불 정도, Full-time의 경우에는 공립이라도 천불 가까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몬테소리 는 기본적으로 1천불에서 2천불 정도 되는데 위스퍼링 인근에 Hope 몬테소리가 유명합니다. (위스퍼링 거주 한국 의사분들 자체들이 많이 다님)
- **기타정보:** YMCA 또는 Kindermusik같은 여러 학원들이 위스퍼링 인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전적으로 부모의 재정능력과 의지에 달려있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고, ESL 스쿨(무료, 각 지역마다 무료 ELS스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꼭 필요하신 분의 경우 사전에 ESL 스쿨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영어공부뿐만 아니라 다국적 학생들과 친구가 되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 **현재 거주 현황:**

- Westchase: Class of 2017 1가족 (기혼, 아이 없음), Class of 2016 1가족 (기혼, 아이 1), 건축학과 1가족(기혼, 아이 1) 등 거주, Class of 2016 1가족 더 거주하다 현재는 한국 복귀
- Charter Place Apartment: Class of 2016 1가족 거주 (기혼, 학생 2)
- Beau Jardin: Class of 2016 1가족 (기혼, 아이 없음) 거주

(4) Brentwood



- **주거정보:** Brentwood 지역은 대규모의 Condo 및 Apartment 가 위치해 있습니다. Wash U 까지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 통학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거주지로는 The Villas at Brentwood, Brentwood Forest Condominiums 가 있습니다.

- The Villas at Brentwood:

Monthly Rent: 1 bed room \$1,300, 2bed room \$1,500 정도

Apartment 이기 때문에 leasing Office를 통해수월하게 계약 체결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시설이 현대적이고 깨끗한 반면, monthly rent 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 Brentwood Forest Condominiums:

Monthly Rent: 2bed \$1,100 정도

Condo 이기 때문에 leasing office 가 따로 없어서, 계약 체결 및 유지보수를 집주인과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가 넓고 녹지가 많아서 전원생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설은 조금 낡은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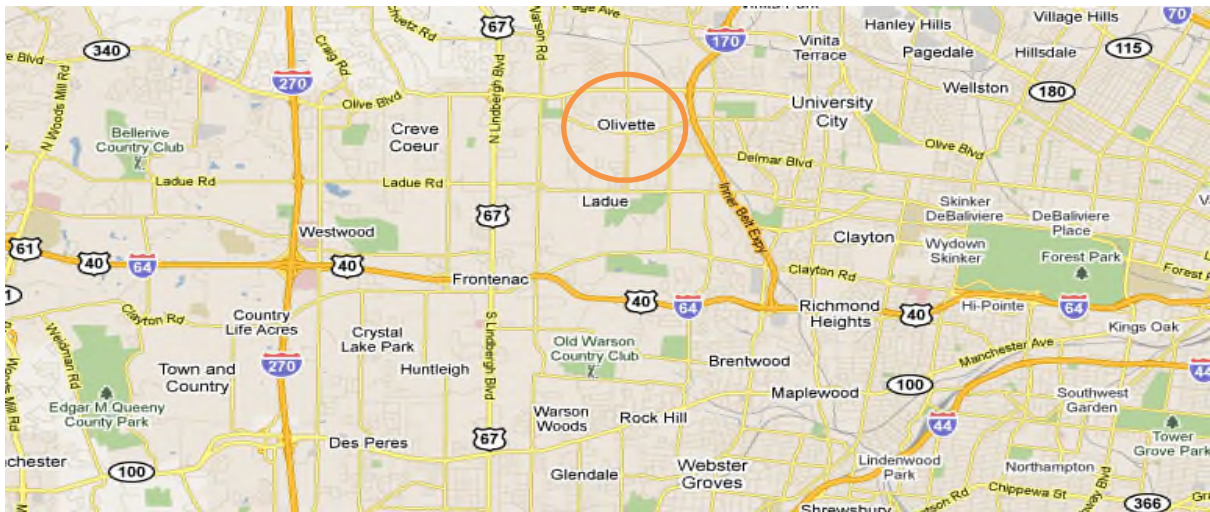
- **자녀교육:** 현재 이곳에는 비교적 젊은 (자녀가 없거나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자세한 학군



정보는 없습니다. 단, 주변에 Brentwood 시에서 운영하는 최근에 open한 Pre-school이 있습니다.

- **기타정보:** 이곳의 장점 중 하나가 주변에 다양한 쇼핑, 편의 시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Whole Food, Trader Joes, Target, Borders등에 걸어서 갈 수 있을만큼 가깝고, 차로 5분 거리에는 Macy's 백화점과 St. Louis Galleria가 위치해 있어서 특히 와이프분들이 시간을 보내기가 용이합니다. 아울러 Villars at Brentwood 앞에는 YMCA가 있어서 운동 및 자녀들의 여가활용에 좋습니다.

#### (4) Olivette



- **주거정보:** Olivette은 Creve Coeur와 인접하는 곳으로 대표적인 단지로는 Bonhomme Village (현재 Class of 2017 1가족 거주, 기혼, 아이 1)가 있습니다. 학교와는 차로 15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곳과 적당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관리 및 maintenance가 잘 유지되고 있고 수영장, 헬스 시설, 테니스 코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onhomme의 렌트비는 2베드 기준 \$1,100~\$1,300 정도입니다. 보통 첫 렌트비는 면제 해주는 promotion이 진행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학군정보:** Olivette의 학군은 Ladue에 속합니다. Ladue는 St.Louis에서 비교적 고소득층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Ladue 학군 초등학교, 프리스쿨 모두 좋다는 평입니다. 아쉽게도 Olivette에 거주하는 현 alum 중 초등학교나 프리스쿨에 다니는 자녀가 없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5) Chesterfield

- I-64 서쪽에 위치한 Chesterfield 지역에도 다수의 한인이 거주하고 아파트가 아닌 하우스 형태로 거주합니다. 하우스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 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좀 있지만 트래픽이 별로 없어서 30분 정도면 통학 가능합니다.



## 2. 자동차

- St. Louis에는 Metro 라고 하는 버스와 전철이 있으나, Clayton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생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자동차 구매는 필수입니다.
- 자동차를 사는 방법은 1) 한국 차를 구입하여 나중에 한국에 가져가는 방법과 2) 중고차를 구입하여 나중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번 방법은 미국내 3개월 이상 거주시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면세이고, 미국 내에서 한국 차를 (한국에 비해) 싼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셔서 다시 차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 추천할 만한 방법이며,  
 2)번 방법은 일제 차량을 사서 타다가 귀국전 매도하는 방법으로, 귀국후 한국에서 차량을 새로 사지 않아도 되는 경우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 간혹 지나치게 저렴한 (예를 들어 \$5,000 미만) 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험 상 지나치게 싼 경우 (마일리지가 높은 경우) 그 만큼 정비 및 유지보수에 비용이 들어가므로 너무 싼 차량보다는 2년 뒤를 내다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중고차 구매

- 일반적으로 중고차 구매는 Dealer 또는 개인간 거래 중 하나로 이루어짐.
- Dealer shop에서 거래하는 경우 선택의 폭이 넓고 차량 Check-up이 되어 있어 안심하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비쌈.
- \* St. Louis 주요 dealer shop  
 1) Suntrup : <http://www.suntrup.com>  
 2) Lou Fusz : <http://www.fusz.com>  
 3) St. Charles Hyundai: <http://www.stcharlesauto.com/>  
 4) Bommarito : <http://www.bommarito.com/>
- 개인간 거래는 동동(East East)마켓에 붙어있는 게시물이나 Craigslist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일반 Dealer 거래대비 가격이 저렴함. 그러나 대부분 As-is 상태로 인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함. 차량에 대한 지식 및 영어로 negotiation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기에는 대체로 dealership을 이용.
- General Information for selecting used (Pre-owned) car  
 1. 차량의 History 검색: 중고차 구매전 반드시 차량의 사고이력을 검색 (일반적으로 Dealer shop이나 개인간 거래시 매도인 측에서 CARFAX 데이터를 네고하는 시점에 보여줌.  
 (만약 차량구매시 CarFax나 다른 차량history 자료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됨. 개인간 거래에서는 따로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사이트에서 직접 VI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를 입력하여 구매하실 수

있음.)

(1 CarFax: \$34.99, 5 CarFax: \$49.99)

2. Safety Inspection & Emission Test: Dealer shop에서 구매할 경우 두가지 Inspections이 사전에 처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Dealer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6년 이후 생산된 차량의 경우 Safety Inspection은 면제됩니다. (제조일로부터 5년간). 그러나 Emission Test는 중고차 차량등록시 필수이므로 매도인에게 Test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개인거래에서는 Emission Test의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3. Lien (담보) 해제 확인: 개인에게서 차량을 구매하다보면 신차구입시 대출을 받아 Title에 Lien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대금을 주기전에 반드시 해당 대출금 상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함께 FedEx가서 수표를 해당은행에 직접 보낸 후 차량인수했습니다.) 대출이 상환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이 상환되었다는 Statement를 기존 대출계약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해당 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넘겨 받은 후 차량등록시 제출하면 새 Title에서 Lien 항목이 공란으로 나옵니다. (대출상환이 안되면 대출까지 떠 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Dealer shop 거래 Tip

1. 사전에 인터넷과 Blue Book 등을 통해서 일반적인 차량시세를 확인  
(www.kbb.com, www.craigslist.org)
2. 구매하려는 차량을 미리 선택 후 dealer shop 방문  
(명확한 Target을 가지고 가야 Dealer에게 현혹될 가능성이 낮음, 차종이 다양하므로 target 을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dealer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음)  
\*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중고차의 경우는 Yellow Book (한10불정도, 서점에서 구입)을 구입해서 시세를 확인하신후 Nego에 임해야 하고, 신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으로 인식되는 MSRP보다는 Invoice 가격까지 Nego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Nego하셔야 합니다. Invoice가격까지 근접했다면.. 성공적인 Nego라 생각할 수 있음.
3. 방문한 dealer shop에서 driving test를 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러 dealer shop을 방문해서 가격 비교
4. 가격 결정권은 dealer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office에 있는 manager가 하는 것임: 딜러도 차를 팔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딜러에게는 최대한 가격을 낮게 (KBB value 기준으로 Private party good value 수준) 제시하고 조금씩 가격을 올려야 함. (본격적인 nego가 진행될 때에는 가격을 가지고 딜러가 매니저에게 계속 왔다갔다 함.) 본인이 생각한 Budget을 넘었을 때에는 과감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길....
5. 일반적으로 Inventory에 오래 머문 차량일수록 네고가 쉬움: 딜러샵에서는 차량을 회전을 빠르게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인수한 지 3개월이 넘은 차량은 가격을 낮추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네고의 여지가 많음!!

6. 차량인수시 자동차보험이 필요: 굳이 딜러샵에서 원하는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음.  
차량 인수하는 일에만 딜러보험으로 커버요청할 수 있고 (저의 경우에는 1주일동안 커버). 1주일 내에 보험서류만 딜러샵에 제출하면 됨. (보험서류는 차량등록시도 필수)

- 중고차 등록 필요서류

1) Proof of Auto Insurance

2) Title (with endorsement from previous owner): 전주인이 배서를 하는 것을 받음

3) Application for Missouri Title and License

4) Odometer Disclosure Statement (타이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5) Lien Release Document (Lien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6) Receipt for paid personal property tax

7) Safety inspection (2006년 이후 생산차량 면제), emissions inspection

참고) 딜러샵에서 차량 구입시는 보험 외에는 모두 준비해서 서류를 보내줍니다.

## (2) 신차 구매

- 신차구매의 핵심은 **딜러와의 가격딜**입니다. 즉 누가 많은 정보와 흥정카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가격딜의 핵심이며 영어의 유창함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는 못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냥 대놓고 나 영어 못하니까 천천히 말해달라고 하세요.)
- **딜러는 사기꾼**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세요.
- **시간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물론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지만 그냥 못사면 말지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딜에 임하세요. 급한 모습을 보여주면 딜러들이 귀신같이 알아채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 즉 가격을 안내리고 시간을 끕니다. 그러니 그냥 가서 대놓고 여기 아니면 그냥 친구한테 차사려나 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딜의 핵심은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다른 곳에서는 혹은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해주더라 하면서 증거를 들이밀면 딜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에 맞추어 주거나 자신들이 맞추기 힘들면 더 이상 딜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딜러들이 다른 매장에 있는 딜러에게 전화해서 “정말 니네가 제시한 이가격이 맞냐”라고 못합니다. 상관습인것 같은데 이걸 잘 이용해야 합니다. 즉 한쪽 딜러샵에 가서 가격흥정을 한후 절대 계약을 하지 말고 그 가격을 받아서 다른 딜러샵에가서 저기서는 이렇게 해준다는데 니네가 더 싸게 해주면 여기서 사겠다라고 말하는게 가장 최고의 전략입니다.
- 딜러와 딜을 하다가 딜이 깨져도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처음 딜을 하실 때 이게 걱정되서 딜러한테 끌려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딜이 깨져도 반드시 연락웁니다. 딜러들 밥 먹고 하는 일이 고객한테 연락하기라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신차구매 순서
  1. 가격정보를 안내해주는 Web Site를 통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 정보를 파악

2. MSRP, Invoice 가격 간략 설명
  3. 온라인 견적의 활용
  4. 딜러십 방문 및 가격 협상 방법
  5. 계약 및 인수
- 가격정보를 안내해주는 Web Site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1. True Car: <http://www.truecar.com/>  
각 지역별 자동차의 MSRP, Invoice, 평균 거래가격, 그리고 최저거래가격을 정규분포 형태로 알려주는 사이트 입니다.
    2. Kelly Blue Book: <http://www.kbb.com/>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신차 및 중고차 정보 사이트 입니다.
    3. Edmunds.com: <http://www.edmunds.com/>  
다른 사이트와 비슷한 사이트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 MSRP, Invoice
    1. Invoice: 이 가격은 쉽게 말해 도매가격 입니다. 즉, 딜러들이 차를 가져오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2. MSRP: 권장 소비자 가격입니다. 즉,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3. 적정 가격: Invoice 가격의 70~80% 할인된 가격으로 사시면 아주 잘 사신겁니다.
    4. 이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쉽게 말해서 두가격 모두 뺑입니다. 딜러십들이 본사에 요청해서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딜러들이 이 가격표를 보여주면서 답답하다는 듯이 우기는데요.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딜러들이 훨씬 싼가격에 차를 가져오구요. 차를 팔때마다 제조사에서 리베이트나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절대 invoice 가격 이하에 팔았다고 손해보는거 없습니다.
  - 온라인견적

**온라인 견적은 좋은 협상카드**입니다. 온라인 견적은 딜러 입장에서 고객을 물어오는 수단이기때문에 무조건 최저가 견적을 보내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모든 할인조건(예를 들어 미군, 경쟁차 소유,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등)을 반영한 가격이므로 실제 매장에 이것만 믿고 가면 당연히 그 가격에 차를 살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온라인 견적 받은것을 출력해서 다른 매장으로 가서 협상의 카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저기서 이런 견적을 받았는데 니네 가격은 왜이리 비싸니?”라고 하면 그쪽 딜러십에서 정말 답답해 합니다. 지들도 온라인 견적이 고객을 꼬시는 가격이라는걸 알기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 그거 들고가도 그 가격에 못산다”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대충 알아듣는척 하면서 그래도 니네랑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딜러들이 가격을 약간 내려줍니다.
  - 매장방문 및 가격 협상

정말 너무 힘든 마지막 과정입니다. 딜러는 기본적으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로는 난 널 믿는다 너한테 차를 사고 싶다고 계속 말하구요. 절대 믿지 마세요.

매장을 방문하는 순서는 가장 먼~ 매장을 첫번째 방문하고 가장 사고 싶은 매장을 제일 나중에 방문하는 사이클이 좋습니다. 거래 될 때까지 계속 매장을 도시면 됩니다. 매장을 방문해서 다음의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유리한 딜을 할 수 있습니다.

1. 마음속에 얼마에 사야지 하는 최저 가격을 정하세요. (조사하신 가격중에 정말 최저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하세요.)
2. **웃을 잘 입고 갑니다.** 돈이 있다는 점과 차를 살 것 같다는 점에서 딜러에게 효과적입니다.
3. **꼭 2명이 갑니다. 즉 부부가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 컨셉은 “나는 그 가격에 사고 싶은데 와이프가 반대한다” 입니다. 둘이 한국말로 약간은 다투듯이 하시면 됩니다. 한사람은 계속 영어못한체 고개만 저으시면 되고 나머지 사람은 답답한듯 행동하시면 됩니다. 영어 못한다고 머라고 안해요. 돈가진 사람이 장땡!
4. **사려고 하는 차종과 모델을 명확히 딜러에게 말하고 stock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걸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고 없으면 가장~ 근접한 모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차를 보고 시승해보는 것은 내가 살 의향이 있음을 말해준다는 점과 차상태 확인은 물론 시승해 본차를 가지고 딜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딜러들이 처리해야 하는 물량이기 때문이죠..
5. 딜이 시작되면, 기본 마인드는 **“나는 돈이 충분히 있으나, Reasonable Price에 사고 싶다”** 입니다. 그럼 Reasonable Price가 머냐고 질문을 받으면 “나도 해피하고 너도 해피한 가격”이라고만 하면 됩니다. 간혹 한국분들중에 돈이 없으니 깎아달라고 “돈없는 컨셉”으로 가시는데요.. 100% 망합니다. 무조건 돈있는 티가 나야합니다.
6. **내가 생각하는 가격은 가급적 늦게 말합니다.** 그쪽에서 가격을 제시하면서 니가 생각하는 가격을 말해달라고 하면, 그냥 난 잘 모르겠고 계속 일단 딜러가 제시한 가격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우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쩔수 없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최저가 가격 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 합니다. 그래서 딜이 깨지면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시 연락오니 걱정마시구요 만약에 딜이 안깨지면 딜러가 협상항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딜이 시작되네요.
7. **말을 줄이세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서 딜하는 척.. 그냥 저녁 머먹을지나 다른 이야기 하시다가요. 한 10분정도 지나면 딜러를 부릅니다. 딜을 할 때 한 3~4시간 잡고 하세요. 딜러가 나중에 본전 생각이 나서도 시간이 아까워서 딜을 잘 안깁니다.
8. 마지막으로 가격이 잘 안좁혀지면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그 딜러 명함뒤에 가격을 적어달라고 하시고 받아서 집에 오시면 됩니다.** 진짜 산가격이 나왔다고 바로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그 명함에 적힌 가격을 가지고 다른 매장을 가서 딜을 해야합니다.

9. 가격 협상을 할 때 우선 확인해야하고 꼭 주의해야 할 것은 “is this price all I have to pay for this car?” 라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항목별 내역을 달라고 해야합니다. 다음날 계약하러 갔을 때 무슨무슨 비용이 더 있다고 돈 더 달라고 땡깡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하는데요. 이럴때 그냥 박차고 나오시면 됩니다. 결국 또 연락옵니다.

- 계약 및 인도

딜이 어렵지 계약과정은 쉽습니다. 딜러들이 전부 준비를 해주구요. 취득세랑 등록세 내는 과정마저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 계약금을 지불하고 자동차 번호를 딜러가 줍니다. 그럼 그 번호를 가지고 보험가입을 하시구요. 임시 보험증이 나오면 나머지 잔금과 함께 딜러십게 가서 차를 찾아오면 끝입니다.

- 기타

1. Demo Car: 이건 매장에서 매니저가 타던 자동차로써 새차라고 하기도 머하고 중고라기도 하기 머한데 등록(pre-owned)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미국에선 새차 입니다. Demo car 는 mile을 확인하시고 사셔야 하며 가격을 마구 후려치셔도 됩니다. 어이 없는 가격으로 살수 있습니다.
2. 한놈만 팬다. 딜을 하는 과정에서 딜러가 너무 가격이 낮으면 그 가격에 다른 차를 주겠다고 합니다. 절대 속지마세요. 그냥 나는 처음 찍은 차 아니면 안살꺼다 라고 딱 잘라 말하세요.
3. 친구의 도움. 친구와 같이 딜을 하러 가는 경우 대부분 잘 안됩니다. 이유는 딜러는 딱 돈가진 사람한테만 집중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듣더라구요. 그래서 부부가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난 사고 싶은데 와이프가 반대한다.)
4. 마지막으로 이렇게 까지 할필요 있나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적게는 2~3천불 많게는 만불정도 깎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1년치 집세가 왔다갔다 하는게 자동차 딜입니다.

### (3) 자동차보험

- 큰보험회사가사고가나면 Dispute를잘해주고, 사고처리도신속하게합니다.
- 6개월마다보험료를지불해야하므로저렴하게할수있는방법을찾아봅니다.
- 딜러에게자동차를사기전에보험이있어야합니다.
- 개인에게사면차량이전및 plate 받으러갔을때보여주어야합니다.
- 대부분은 Progressive, Geico 등인터넷을통해자동차보험을가입하며보험가입전다수의보험회사의 인터넷사이트를통해가격을비교한후선택합니다. 현지에서운전면허증을빨리따는것이보험료를절약할수있는지름길입니다. 다만 Progressive, Geico 온라인 보험회사는 최초 가격 산정시 저렴한

보험료가 산출되어 다수의 유학생들이 가입하였으나 추후 credit history 체크후 보험료가 두배 가량 오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자동차보험회사

- AAA (Triple-A), <http://www.aaa.com> , headquartered in St. Louis, Many agent offices, Example, Clayton office, <http://www.ouraaa.com/aaainfo/offices/missouri/claytonc.html>
- State Farm, <http://www.statefarm.com>, more bigger than triple-A, Search agents offices near your place
- American family insurance, <http://www.amfam.com/?userid=100067> , A big insurance firm
- Geico, <http://www.geico.com> Online car insurance
- Progressive, <http://www.progressive.com> Online car insurance
- 김인섭(한국인자동차보험설계사) 815-727-0095

\* 자동차보험료를줄이는방법

- 한국경찰서에서운전경력증명과무사고증명서발급을받는다
- 한국의보험회사에연락해서보험증명을받아온다. (영문으로 된 Certificate of Insurance 3년치)
- 미국에서빨리면허증을따다.
- 국제면허증으로위의증명없이보험을들면 800불정도들. 위의증명을다적용해서 600불대이면 good deal이다. 그리고보험이끝나기한달전에보험료를다시산정하면더싸질수있음. (단, 주거지역과차종, 연식에따라매우상이함)
- 차를한대추가할 때 multi-car discount가 적용되어 추가 감면을 받을수 있다.
- Deductible 을주로 500로설정하는데낮추면보험료올라감.
- 안전한동네에산다 (우편보호로범죄율을조회해서보험료를책정함)
- Credit History를 만든다.
- 자동차를사는시점에서한달혹은 2주전에보험을산다. 자동차가정해져야만 보험을 살수 있다.
- 부부모두가 운전할경우 두사람모두 MO면허를 받아야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다.
- 대형 메이저 보험사는 여행중 Rental car보험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이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 MO면허 발급후, coverage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본다. (가격차가 10%정도) 국제면허상태에서는 coverage에 따라서 가격차가 많이 난다.
- 방학중 캐나다로 차로 여행할 경우보험사에서 발급된 카드가 필요하니 여행전 미리 보험사에 요청하여 수령한 후 여행을 가는 것이 좋다.

\* 자동차보험용어설명

-다음은전형적인자동차보험 format 입니다.

- 1) Bodily injury/Property Damage \$25,000/\$50,000/\$25,000 \$402
- 2) Excess Medical Payment \$1000 \$26
- 3) Uninsured Motorist\$25,000/\$50,000 \$29
- 4) Under-insured Motorist\$25,000/\$50,000 \$15

- 5) Comprehensive \$1,000    \$125
- 6) Collision \$1,000    \$365
- 7) Rental Reimbursement \$30/day (up to \$750)    \$41

-해설:

- 1) 대인한도 (bodily injury): \$25,000 each person/\$50,000 each accident
- 대물한도 (Property Damage): \$25,000 each accident
- 대인대물한도는높이면보험료가올라갑니다. 위의예에는보험료가 \$402네요. 위를잘살펴보면많지않은금액임을알수있습니다 (미주리주의법적 minimum입니다). \$25,000불이면캠리한대정도보상하는수준입니다. 만약에 40,000불짜리를박았는데박살이나면 15,000불은내가물어야합니다. SUV 한대값인 50,000불정도하는것이적당하지않을런지....(개인의선택사항입니다). 대물한도를높이면대인한도는자동으로올라가게되어있습니다. 위의예에서대인한도도조금작아보이네요. 하지만, 많은유학생들이미주리기본옵션을선택합니다. 조그만사고만날것을가정하고요.
- 2) Excess Medical Payment: 차사고로 emergency room에 실려 갔을 경우 해당하며 \$1000한도지원합니다. 그 후 추가비용은 bodily injury로 보상.
- 3) Uninsured Motorist: \$50,000 each person/\$50,000 each accident
- 무보험운전자에의해서사고가발생했을경우나에게지원되는금액
- 4) Under-insured Motorist: \$25,000 each person/50,000 each accident
- 상대방의보험이나를치료하기에충분하지않을때지원되는금액
- 5) Comprehensive: 자차보험으로충돌로발생하지않은모든 physical damage를말합니다. 예를들어, 도난, 홍수, 화재혹은짐승에의한피해가있습니다. 위에는 \$1000(deductible) 까지는보험주인이부담을하고나머지부분은보험회사가지불한다는조건이네요. 주로 \$500불로설정하는것이기본입니다.
- 6) Collision: 자차보험으로충돌로인한피해입니다. 대인/대물다음으로비쌉니다. 주로 500불의 deductible을설정합니다.
- 7) Rental Reimbursement: 내차가고장으로공장에들어가서보험으로사용해서고칠때하루에 30불총 750불까지(25일치)를지원합니다.

참고: <http://www.esurance.com/FAQ/covereddefinitions/index.asp>

#### (4) 운전면허따기

- OISS에서운전면허를시험을보겠으니재학증명서를요청합니다. 하루걸립니다.
- F-1 (본인) 과 F-2 (배우자) 두개를신청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장소와 관련된 정보는 OISS에 비치되어 있으니 재학증명서 발급신청시 요청하여 수령하고 본인 거주지 및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서 응시하면 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에는 4개의서류를가지고갑니다 (I-20/I-94/여권/재학증명서)
- 하루에필기/실기다볼수있습니다. 필기는한국어시험지를신청합니다. 필기를통과하고실기를나중에보려면 permit 을 license bureau (DMV center)에가서받아옵니다.



-필기시험은이론시험과 Visual Test로구분됩니다. 컴퓨터앞에서시험을보는이론시험과시험관이 물어보는 Visual Test로구분됩니다. 예를들어, 도로표지판을보여주면서뭐냐고물어봅니다.

-시험을통과하시면그옆에있는 DMV 에가셔서운전면허를발부받으됩니다.

(일단종이로된임시면허증발급되며신청한주소지로약일주일정도후에배달됩니다.)

\* Daum café “세인트루이스에서만난사람들” 사이트에보면... 운전면허매뉴얼이있습니다.

운전면허는한국어로응시할수있고, 하루에두번연속필기시험을볼수있기있습니다.

\*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대부분은당일에필기, 실기시험을통과할수있으니크게걱정 할필요는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후 실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2번더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 3번의 실기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할경우 미주리주의 제퍼슨시티로 서류를 보내고 운전면허 유자격자와 20시간의 동행운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4번째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운전면허를 따러하기보다는 충분한 운전주행 연습후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길일수 있습니다.

#### (5) 자동차 관련 유익한 사이트

-Kelly Blue Book, <http://www.kbb.com>, 중고차의 시세를 알아보는 사이트, 보통 Good value를 기준으로 Deal 이 이뤄집니다.

-Edmund.com, <http://www.edmunds.com>, 현재 거래되고 있는 차 (새 차 포함)의 최저 및 최고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딜러를 만나러 갈 때 확인해보고 가면 도움이 됩니다.

-Autozone, <http://www.autozone.com>, 차의 각종 부품을 살 수 있는 곳. Store 들이 Saint Louis의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정비에 관심이 많으시면 참고할 만한 사이트

### 3. 각종 편의 정보

#### (1) 쇼핑정보

(물론 사시면서 모든 곳을 다 가보게 되지만 각 쇼핑몰 마다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가 상이 하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Directory를 보고 각자의 기호에 맞는 브랜드가 있는 쇼핑몰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 일반 쇼핑몰

(가족과 함께 쇼핑, 식사, 여가를 한곳에서 할 수 있는 곳으로 미국 대형 백화점 체인인 Macy's, Nordstrom, Dillards 등이 함께 위치하여 웬만한 일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이 구매가능합니다.)

##### 1. Galleria Mall (Brentwood)

Location: Brentwood Blvd. & Clayton Rd, St. Louis, MO 63117

Web: <http://www.saintlouisgalleria.com>

## 2. Chesterfield Shopping Malls

Location: 291 Chesterfield Mall, Chesterfield, MO 63017-4810

Web: <http://www.chesterfield-mall.com>

## 3. West County Mall (Macy's, JC Penny 등 입점)

Location: 80 West County Center, Des Peres, MO 63131

Web: <http://www.shopwestcountycenter.com/>

- 고급 쇼핑물

(미국의 고급 백화점 체인인 Nieman Marcus와 Saks fifth avenue가 함께 위치해 있으며, 다른 일반 쇼핑물에 없는 고가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음. Macy's 등은 백화점이라고는 하나 처음 가보면 한국의 백화점에 비해 많이 열악합니다. Nieman과 Saks에 가서야 소위 말하는 “명품”을 다수 접할 수 있습니다.)

## Plaza Frontenac

Location: Lindbergh Blvd. & Clayton, St. Louis, MO 63131

Web: , <http://www.plazafrontenac.com>

- Outlet 쇼핑물

(세인트 루이스 지역에서 Factory outlet이 가장 많이 입점되어 있는 쇼핑몰로, 한번씩 가족과 함께 함께 저렴한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임)

Saint Louis Mills, <http://www.saintlouismills.com>

(Saint Louis 에서 제일 큰 아웃렛 몰, 단 한국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Polo, Coach 등의 유명 브랜드가 없습니다.)

5555 St. Louis Mills Blvd. Hazelwood, MO 63042

Chelsea Premium Outlet in Osage Beach, Missouri

( Ozark 지역은 나름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http://www.premiumoutlets.com/outlets/outlet.asp?id=57>,

-Chelsea Premium Outlet in Aurora, Illinois (시카고 근처에 있습니다. 4시간 정도 걸립니다.)

<http://www.premiumoutlets.com/outlets/outlet.asp?id=63>

- Groceries

- Schnuks -- 곳곳에 있음.

- Dierberg – Schnuks와 거의 유사함

- Target – 역시 곳곳에 있음

- Whole Food – Brentwood와 Town & Country 지역에 위치.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며 질이 좋으나 다소 비쌘

- Trade Joe's – Brentwood와 Olive Blvd&Craig Rd 에 있음. 유기농 제품 위주, Whole Food보다 약감 저렴

- Wild Oats – 유기농을 팔지만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Ladue Rd in Clayton 에 있습니다.

- 대형창고매장을 선호하시는 분의 경우 Costco (2곳)와 Sam's Club이 있습니다.

\* Costco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한 카드로 사용가능하며 현금과 American Express 카드만 사용가능합니다. (카드 발급비용이 \$50로 한국보다 비싸므로 한국에서 만들어 오는것이 다소 저렴합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해 Costco 및 Sam's club에서 기름을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중에 비해 갤런당 약 \$0.1~0.15 저렴)

<http://www.costco.com/Home.aspx>

<http://www.samsclub.com/shopping/index.jsp>

## (2) 은행계좌

- 학교 Book store 옆에 Bank Of America 에 가서 어카운트를 여는 것이 가장 편리하나 여름 방학 기간중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Calyton에 위치한 BOA나 Olivette의 BOA에서 개좌를 개설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Saving Account 와 Checking Account 를 여시고 Checking Account 를 Primary 로 설정하세요. Check 는 두 박스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단 아파트 rent 계약이 완료 전이라면 Check를 받으실 적당한 주소(OISS로 해두기도 합니다)를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rent 계약을 완료하시면 은행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 Checking Account 여실 때 연회비를 내지 않는 option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매년 바뀌는 사항이며 지난 해의 경우 모든 notice를 online으로 받고 ATM 이용만 하겠다는 조건으로 연회비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Saving Account 는 Interest bearing 으로 하세요. Saving Account 는 백업 어카운트 입니다. 즉, Checking Account 에 돈이 모자라면 자동으로 Saving Account에서 빠져 나갑니다. (단, 매년 \$10 이상의 예금이자 발생하는 경우 IRS에 TAX 신고를 해야 하므로 가급적 \$10 미만으로 예금이자 발생하도록 조절해야 함)
- 두 계좌를 여는 이유는 금융사고가 생겼을 때의 Risk를 줄이는 것입니다. 즉, Checking Account에 많은 돈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Debit 카드를 신청하세요. Visa 카드 기능이 되는 것으로요. 이 Debit 카드는 신용카드의 기능이 있습니다. 상점에 물건 사러 가시면 Debit or Credit이라고 물어볼 때, Debit 이라고 하면 Pin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 나갑니다.
- Credit History 가 필요하신 분은 Secured Credit 카드를 만드세요. 이 카드는 미국에 신용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에게 적절한 카드입니다. 일년 동안 사용하고 다음에 정식 Credit 카드

로 전환합니다. Secured Credit 카드는 연회비가 있고 한도가 소액입니다 (2000불에서 3000불 사이). 즉, deposit을 내고 해당 금액내에서 한도가 설정되어 이용하다가 1년 뒤 deposit을 돌려주고 정식 신용카드가 됩니다.

(제때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면 언제부터인지 Capital One, Citi, American Express 등에서 카드 개설을 권유하는 메일이 계속 옵니다..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 BOA의 경우 Online Banking 을 통해 계좌조회, 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는 경우 입금수수료로 건당 \$17불이 공제됩니다.

### (3) 의료 (건강) 보험

- 학생 본인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Aetna) 보험에 가입합니다.

기본적으로 Basic 또는 Advance 중에 하나 가입합니다. (deductible의 차이).

본인 희망에 따라 Dental Plan 과 Prescription Plan을 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치아 치료시 비용이 상당하므로 한국에서 다 check 받고 오시길 권장합니다.

Prescription Plan은 약값 보조 plan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입하시는 것이 좋으나 만약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으시고 제약회사에서 약값을 무료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Prescription plan으로 인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및 자녀들은 본인과 같은 plan으로 Aetna에 가입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Aetna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보험료는 본인 보험료의 2~3배가 넘습니다.). 단 미국에서 출산을 계획 중이시라면 반드시 배우자도 학교 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한국에서 제공해주는 여행자보험은 출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한국에 비해 상당히 비싸며 보험에 가입해도 Deductible은 내야 하고 진료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소아과의 경우 의사 진찰만 받아도 거의 \$100가량 청구되며, 가급적 응급실이나 앰بول런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정경제상 좋습니다.

### (4) 가구점

- 처음 오시는 분에게 weekend outlet 이나 value city furniture를 권합니다.
- Weekend Outlet 은 금토일요일에만 문을 엽니다. 가구가 싸고 한꺼번에 사기에 좋습니다. 1500불 정도면 집에 필요한 가구는 모두 삽니다. <http://www.weekendsonly.com/>
- Linderberg 상에 있는 Weekend Outlet 에 가면 맞은 편에 Value City Furniture가 있습니다. 같이 둘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금 더 디자인이 좋은 가구를 원하신다면 시카고에 있는 IKEA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UHALL에서 트럭을 빌린 다음 시카고 가서 사오면 됩니다.
- 고급 가구를 원하신다면 Ethan Allen 을 권합니다. Sonoma Home 등 다른 고급 가구 점도 있



습니다.

- 대부분의 가구점들이 Delivery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5) 전화, TV, 인터넷

- 전화: 대부분 집에는 별도 전화가 없고 핸드폰을 이용합니다.
  - 핸드폰은 현지에서 구매해도 되고 PAY PHONE을 구입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단, 경우에 따라 DEPOSIT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출국전에 Sprint 핸드폰을 구입하고 미국에 도착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옵션도 있습니다. 현지 도착 후 해야하는 일중 한 가지를 미리 해온다는 관점에서는 나름 괜찮은 옵션입니다. (<http://www.sprintkorea.co.kr/>)
- 텔레비전
  - 대부분 Charter, AT&T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합니다.
  - 가격은 Charter가 조금은 저렴한 것 같고 AT&T는 서비스가 괜찮습니다.  
단, AT&T의 경우 SSN이 없는 경우 별도비용 (\$400)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Dish나 DirecTV같은 위성 TV도 있습니다.
- 인터넷
  - 대부분 Charter, AT&T에서 인터넷 번들 옵션을 선택합니다.
  - 속도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며 다운로드 속도는 한국에 비해 매우 느립니다.
  - AT&T의 경우 인터넷, TV (200채널) 기준 월 \$95 정도가 청구됩니다.

#### (6) 한국 슈퍼

- 동동 (East East) --- I-70 & Olive Blvd 에 있습니다. 가장 제품의 질이 떨어지지만 학교에서 West로 가는 길목에 가깝습니다.
- 아시아 슈퍼. --- Olive Blvd & Fee Fee Rd에 있습니다. 같은 물에 한국인이 하는 이발관이 있습니다 (박찬호 아저씨가 주인입니다). 한국 말로 '이발'이라고 문쪽에 써 두었습니다. 슈퍼 옆에 한국관이라는 한국식당이 있습니다. 길 건너에 Happy China라는 중국 집이 있습니다. 두 식당 모두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 West 동동. --- 역시 Olive Blvd 상에 있습니다. 아시아 슈퍼를 지나야 합니다. 근처에 한국식 빵집인 김덕원Bakery가 있습니다. (학생증을 제시하면 TAX를 빼줍니다.)

#### (7) 한국 식당

- 서울가든 - 10678 Saint Charles Rock Rd, St. Ann, MO
- 한국관 --- Olive Blvd & Fee Fee Rd 에 있는 물입니다. 아시아 슈퍼 옆에 있습니다.
- U-City Grill --- Sam Chun (MBA 마케팅 교수)의 in-laws들이 하는 작은 가게입니다. Delma-loop에 있어서 주로 학생들이 고객입니다.

- JOO JOO라는 식당과 Happy China라는 중국식 부페도 한국식당입니다.

#### (8) 호텔, 비행기 및 렌터카 예약

- Priceline.com – <http://www.priceline.com> 사용자가 가격을 지정하면 서버가 자동으로 가격대가 맞는 호텔, 비행기, 렌터카를 찾아줍니다. 단점은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 효과 만점입니다.
- Expedia.com --- <http://www.expedia.com> Search 기능이 좋습니다. 여행의 시작 지점입니다.

#### 비행기에 대한 기본 상식

- United Airline은 허브 공항이 시카고와 덴버입니다. 연착이 자주 되고 직원들이 불 친절합니다. 제 시간에 비행기가 출발하는 것을 고마워 해야 합니다. 시카고에서 UA를 이용한다면 연착을 염두해야 합니다. 비행 스케줄을 110% Overbooking을 합니다.
- American Airline은 on time departure rate이 높은 항공사로 알려져 왔습니다만 최근 회생절차 진행 중인 탓에 유지 보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 시카고는 Immigration 처리가 느리기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올 때, 3시간 정도의 갈아타는 시간을 확보하는 유리합니다.
- 도착지 공항에서 내 짐에 안 올 때는 Baggage Claim 을 처리하는 부스에 가서 말하면 다음날 혹은 그날 밤에 집으로 혹은 묵는 숙소로 배달해 줍니다. 다시 공항 갈 필요 없습니다.
- 공항에서 도착해서 주로 E-Ticket부스를 이용하십시오. E-ticket 번호나 Locator를 알면 쉽게 나의 보딩 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Online에서 티켓을 사면 E-Ticket번호를 꼭 확인 하십시오.
- 국제선도 E-Ticket부스가 있지만 Agent 를 직접 만나서 보딩 패스를 받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우리 구 여권을 잘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 가는 비행기 표 구하기

- Expedia.com 이용하는 방법
- 세인트 루이스에서 한인이 하는 A1 여행사 이용 (전화번호 ????)
- 시카고에 있는 여행사 이용하기 --- (Sharp 여행사, 동서 여행사입니다). 두 여행사 모두 친절하고 잘 해 줍니다. 시카고에 있으므로 자리를 잘 잡아 줍니다. A1 여행사가 자리를 못 잡을 때 Sharp 여행사는 잡아 주더군요. Sharp 여행사는 강추입니다. 전화하시면 상담하고 Email로 예약 정보를 보내줍니다. 간편하고 카드로 지불하면 됩니다.  
<http://www.sharptours.com/>

#### (9) 운동정보

• **GYM (수영, 헬스, 라켓볼 등)**

- Brentwood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Mid-County YMCA (<http://www.ymcastlouis.org/mid-county-family-ymca>)를 주로 활용합니다. 기본 이용료는 매월 1가족에 \$80입니다. 기본 가입을 통해서 수영, 헬스, 라켓볼 이용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수업들을 \$10~\$30정도 추가 지불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운동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Bonhomme에 사시는 분들 역시 Brentwood의 Mid-County YMC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Whispering Hills에 사시는 분들은 단지 안에 있는 테니스장,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인근에는 Edward Jones YMCA와 조금 더 먼 위치에 JCC(Jewish community center)가 있어서 월회비를 납부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식 헬스장소는 인근에 있기는 하지만 헬스장의 규모 및 분위기가 한국과 비교하여 많이 떨어집니다. 조깅을 원하시는 분은 차로 5분거리에 있는 Millenium Park나 10분거리에 있는 Creve Coeur Lake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 학교안 체육관에도 수영장과 각종 운동시설이 있는데 (학생 무료, 락카는 유료), 헬스장은 별도로 연 \$50정도 회비를 납부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outh Campus에는 탁구대가 구비된 체육관이 있어 주 1회 정도 학생들간 친목 탁구 시합이 있다고 합니다.

• **골프채 구입**

-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골퍼가 될 건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채를 구매하였고 충분한 골프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골프채는 보유하고 있으나 거의 필드 경험이 없으신 분이나, 미국에 와서 자신의 첫 골프채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골프 전문 Shop에서 구매하기 --- Golf Galaxy, Smith Golf 가 있습니다.
- 필드에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새것 기준)  
아이언세트 : 3/4/5/6/7/8/9/PW 의 8 iron으로 구성됩니다. 가격 \$200~800. 45세 미만의 경우 스틸샤프트를사시는게 맞고, 플렉스는 레귤러로 사면 됩니다. (스윙 스피드가 매우 빠르고 7번 아이언 기준 160YD이상 거리가 나시는 분들은 스틸프로 사면 됩니다.) 한번 산 채로 Performance 관계없이 노년까지 즐기실 분 들은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낮은번호(3-5번) 아이언대신 하이브리드로 대체된 세트구성도 많습니다.  
드라이버 : 초보자는 Loft 10.5도/레귤러 샤프트를 사용합니다. 스윙스피드가 매우 빠른 경우에만 9.5/스티프로 사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가격 \$150~400  
웨지 : 52도, 54도, 56도, 58도, 60도, 64도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6~8도 정도 차이가 나도록 2개를 보유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개당 가격 \$40~\$100  
우드/하이브리드 : 조합을 해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번우드+5번우드. 또는 3번우드+2번하이브리드 이렇게 구성하면 대부분의 거리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하이브리드는 같은 번호의 아이언을 대체하는 채입니다. 가격 개당 \$80~200

퍼터 : 모양 마음에 드시는 것 사시면 됩니다. 가격 \$60~\$300

가방 : 미국에서는 스탠드백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나이드신 분들과 사교적인 골프를 많이 칠 예정이시라면 처음부터 투어백이나 스태프백을 사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가격 \$100~\$300

골프화 : 모양 마음에 드시는 것 사시면 됩니다. 가격 \$40~\$200

골프의류 : 일반의류 입고 치셔도 상관은 없으나, 전문의류가 Performance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타 소품 : 한국 골프장과 달리 골퍼가 모두 다녀야 하므로, 공/티/마커 등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 골퍼의 유형에 따른 브랜드의 선택

한국에 돌아가서도 골프를 칠 예정이며, 한국에서 고급브랜드로 취급받는거 사겠다 : 미즈노, 핑, 스릭슨, 브릿지스톤, 혼마, 마루망 타이틀리스트 등

한국의 일반 직장인 골퍼로서 적당한 제품을 사겠다. : 테일러메이드, 캘러웨이 등

한국에서의 인지도와 상관없이 가격대비 Performance가 좋은 제품을 사겠다 : 클리브랜드, 코브라, 아담스, 월슨 등

- 오프라인 샵

1. Golf Galaxy : 학교에서 가깝습니다. 가격은 비싼편입니다. 주소 90 Brentwood Promenade Ct. Brentwood, MO, 63144

2. Golf Smith : 구성이 가장 많으며, 시뮬레이션 시설이 좋습니다. 가격은 중간입니다. 주소 11955 Manchester Rd, Des Peres Center, Saint Louis, MO 63131

3. Edwin Watts Golf : 구성은 많지 않으나,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주소 13986 Manchester Road, Ballwin, 63011

4. 기타 : Dicks 와 Sports Authorities 등 스포츠 용품 판매점에서도 골프용품을 판매합니다.

온라인 몰 에서 클럽 사기

1. Golf Discount : 제품은 많으나, 가격이 비쌈

<http://www.golfdiscountsuperstore.com/Default.aspx>

2. Golf Galaxy : 제품은 많으나, 가격이 매우 비쌈, <http://www.golfgalaxy.com/galaxy/>

3. GPP Golf : 제품 많고, 가격 중간, <http://www.gppgolf.com/>

4. Rockbottomgolf : 가격 매우 저렴, 제품 종류가 적음, <http://www.rockbottomgolf.com/>

5. TGW : 제품 많고, 가격 저렴, Clearance가 많음, <http://www.tgw.com/main.jsp>

6. ebay : 용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을 경우, 가장 저렴하게 구매가능 합니다.

골프 연습장

-Highland Golf Course, 주소 5163 Clayton Rd, St. Louis, 63110,

<http://www.highlandsgolfandtennis.com>, 포레스트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 가능하며 학교에서 매우 가까워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다니고 있

습니다. 겨울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1개월에 50불이며 가족 1명 추가등록시 20불 추가됩니다.

-Tower Tee Golf, 주소 6727 Heege Rd, St Louis, <http://towertee.com>, 학교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난방시설이 있어서 주로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가격은 자주 변합니다.

#### 골프 예약

-온라인에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어 일반적으로 20%이상 저렴합니다.

-lastminutegolf.com

-golfnow.com

-314golftentimes.com

- [golf18network.com](http://golf18network.com)

-골프장 자체 사이트 또는 전화로 예약

#### 314golf Membership 카드

- 314카드는 세인트루이스 인근 20개 골프장에서 각1회 Cart Fee(\$10~\$20)만을 지불하고 라운딩을 할 수 있는 카드로, 라운딩 평균 비용을 \$5정도 줄일 수 있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1시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85정도의 Membership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 <http://www.314golf.com>

#### 주요 골프장 (학교에서 30분 이내)

-가격은 Ride 기준으로, 주중 \$15~\$40, 주말 \$20~\$60 정도 입니다.

-Aberdeen, Ballwin, Crescent Farms, Deer Creek, Eagle Springs, Emerald Greens, Falls, Far Oaks, Forest Park, Gateway National, Florissant, Grand Narais, Highlands, House Springs, Missouri Bluffs, Normandie, Orchards, Pevely Farms, Pheasant Runs, Links at Dardenne, Quail Creek, Raintree, Riverside, Ruth Park, Stonewolf, St. Peters, Sugar Creek, Sunset Lakes, Woodlands 외 다수

-주소 및 홈페이지는 골프장이름 으로 구글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 볼링

- 브렌트우드와 Bonhomme 지역에 볼링장이 있으며 게임당 \$2정도의 비용으로 볼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Olivette Lanes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 Olivette Lanes, 주소 9520 Olive Boulevard, St. Louis, MO 63132

- Tropicana Lanes, 주소 7960 Clayton Rd, Richmond Heights, MO 63117

#### 당구

- 세인트루이스 지역에도 4구 다이가 하나 있는 당구장이 있습니다.

- Cue&Cushion Billiards, 주소 2425 Woodson Rd, Overland, MO, 63114

(10) St. Louis 관광정보

**10 THINGS TO DO IN ST. LOUIS**

Forest Park:

Zoo – membership/free – penguin/puffin coast, elephant habitat, and children's zoo –take train

Art museum – membership/free

Science center – membership/free

History museum – membership/free

Faust Park:

Carousel

Butterfly house – wear bright colors – use family attraction card to get one ticket free

History village – on weekends

Riverfront:

Arch – buy ticket to go up – then see museum while wait

Old courthouse

Downtown:

City museum – old shoe factory, turned interactive jungle gym/museum/artists' workshop

Botanic Gardens – membership/fee – Climatron (rainforest) and Japanese coy pond – take tram

Brewery – free

Bowling hall of fame

New Basilica Cathedral (amazing interior almost entirely covered in mosaics)

Tower Grove Park – free – driving through to look at the many pavilions

The Hill (little Italian):

Good Italian restaurants – search on google

Ted Drewes – famous frozen custard (ice cream) – apple pie cement or orange slushy for kids

Kirkwood and vicinity:

Downtown shops – Bug Store, Cornucopia (best kitchen store ever), Down by the Station, etc.

Train station/custard stand

Magic house – membership/fee – great for kids

Dog museum

Grant's farm - \$8 per car – Busch zoo/farm – feed the pygmy goats \$1/bottle, bring quarters to buy feed for the llamas and camels

Laumeier outdoor sculpture park – membership/free

Museum of Transportation – trains and autos – fee

The Loop: University City.

just walk around and see funky shops – use family attraction card to get a free ice cream soda at Fitz's

Visit Blueberry Hill on Friday evening to enjoy Jazz performance or to eat famous hamburgers.

Day trips:

Cahokia Mounds – Indian village

Hannibal – Mark Twain's hometown – cave, riverboat tour, etc.

Onondaga cave – a cool spot on a hot day

Springfield, IL: Lincoln museum

Elephant Rocks and Johnson shut-ins: mammoth size rock park and natural water slides

There is a pamphlet that Dierberg's grocery store carries called a Family Attractions Card. (It's just not a card, but really a tri-fold flyer.) It's usually by the customer service desk. It has lots of discounts for various places around St. Louis (Ifree floats at Fitz's with purchase of an entrée, buy one/get one free tickets to butterfly house, etc.)

You can also download one at:

<http://www.familyattractionscard.com/MO/STL/>

you may need to fill out a name/address info thing, first, though.